

“나라 운명 결정할 소중한 생애 첫 투표 설레요”

■ 광주 최연소 유권자 1998년 5월 10일생 정지우씨

“직접 뽑은 후보자 당선되는 기쁨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

“하마터면 투표 못 할 뻔했어요. 겨우 며칠 늦게 태어나는 바람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된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정지우(여·19·사진)씨는 광주지역 최연소 유권자다. 정씨는 1998년 5월10일 오전 10시에 광주에서 태어났다. 선거날에 맞춰 ‘만 19세’라는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실시한 ‘최연소 유권자 찾기 이벤트’에 친구의 소개로 참가한 정 씨는 이벤트에 당첨되어 선거 홍보도움에 밝혔다.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던 정 씨는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 유아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휴일도 없이 열심히 공부 중이다. 평소 야구광인 정 씨는 지난달 2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시구·시타 행사에도 참여했다. “아슬아슬하게 투표를 얻었다. 여러 대

선 후보들의 공약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도 누구 뽑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정 씨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얻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직접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기쁨을 생일 선물로 받고 싶다”며 웃었다.

정 씨는 투표 당일인 9일 오전 부모와 함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인생의 첫 투표에 나선 소감에 대해서는

“누굴 뽑을지 아직도 지켜보는 과정”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편집 동영상 봤다. 내가 찍은 한 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는 이어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길 바란다”며 “세월호 사건처럼 큰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며, 특히 20대의 꿈을 실현해줄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에 규정되면서 5월10일 23시59분에 태어나도 1일에 산입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998년5월10일에 태어난 정지우씨는 1999년5월9일이면 만1세가 되고, 만1세가 되는 날짜는 2017년5월9일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생은 총 67만9307명이고, 이 중 5월11일 이후 출생자가 절반이 훨씬 넘는 39만1406명이다. 특히 불과 하루 차로 투표하지 못하는 5월11일생만 2024명에 이른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투표권 5월10일생까지 인정된 까닭은?

공직선거법·민법 기준 따라 태어난 당일 1일로 계산

1998년 5월10일 태어난 정지우 씨와 다음날인 5월11일 출생한 김민지(가명)씨는 하루 사이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놓고 희비가 갈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5월9일이면 만19세는 1998년

5월9일 출생자까지여야 할텐데 왜 5월10일생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질까?

태어난 날을 산입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이다. 일반적으로 연단위 계산에는 당일은 포함하지 않아 다음날이 돼야 만1일이 된다. 하지만 선거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공직선거법(제17조)과 민법(제158조)



문화전당 민주평화기념관 12일 첫 공개

5·18 이야기 ‘열혈간의 나비떼’ 내달 11일까지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5·18 민주평화기념관(옛 민주평화교류원)이 우여곡절 끝에 전당 개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민에게 임시 공개된다.

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5·18민주평화기념관을 5·18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6월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전당 5개원의 하나로 5월 유적이기도 한 5·18민주평화기념관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대책위) 등의 원형복원 농성 등으로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이들은 5월 행사를 계기로 한시 개방하기로 문화전당측과 합의했다.

시민들이 5·18민주평화기념관에서 만나게 될 콘텐츠는 광주항쟁 열혈간을 가·송·전·결 구조로 나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열혈간의 나비떼’(사진). 전시 콘텐츠는 현재 1관(옛 경찰청본관)만 완료된 상태다. 2관(경찰청민원실), 4관(도청본관)은 5·18단체와 대책위 요구로 콘텐츠 구축이 중단됐다. 3관(도청회의실), 5관(상무관)은 건축 리모델링만 완료됐다.

이번에 공개될 1관은 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 집회와 차량시위, 급남로 집단발포에 이르는 상황 등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이 당시 현장으로 들어가 간접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2관은 계엄군이 퇴각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해방광주’ 상황을 ‘환희’라는 주제로 표현한 공간이다. 4관에서는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최후 항쟁을 구현했다.

문화전당측은 시민군 상황실, 무기회수 현장, 운상원 시민군 대변인 사망 장소 등 건물 안팎에 새겨진 5월의 흔적과 역사적 기억을 사진과 증언기록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문화전당은 이번 임시 공개를 바탕으로 5·18 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어떻게 알려 나가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를 찾을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5·18민주평화기념관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념관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문 해설사의 해설은 하루 4회(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황금연휴 대형 산불...강릉·상주 진화, 삼척은 강풍 속 사투

상주에선 등산객 참변

황금연휴 막바지인 지난 6일 강원 강릉과 삼척, 경북 상주 등 3곳에서 발생한 산불 중 2곳의 진화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삼척 산불은 워낙 산세가 험한 데다 강풍이 다시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3곳의 산불은 바짝 메마른 대지와 초속 15~20m의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졌다. 화마는 순식간에 민가와 산림을 초토화했고, 상주 산불은 불길을 피하려던 등산객의 목숨도 앗아갔다.

지난 6일 오전 11시 42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인근 야산에서 난 산불은 이튿날인 7일 오후 늦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산림당국은 7일 오전부터 진화헬기 23대와 지상 인력 23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그러나 산복 확산지역이 고산지대인 데다 오후 들어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진화헬기 4대를 삼척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 공중 진화를 한층 강화했다. 삼척 도계읍 누구 1리 227가구 30여 명의 주민은 불길을 피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한 상태다.

산림 당국은 “삼척 산불은 산세가 험하고 지상 인력 투입이 어려운 데다 담수지가 다소 멀어 진화가 더딘 상황”이라며 “공중에서 불을 뿌리더라도 산불이 난 지



지난 6일 오후 3시께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강한 서풍을 타고 번진 산불로 성산면 일대 민가 30여채가 소실됐다. <강원일보=박승선기자>

표면에 직접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3시 32분께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27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은 한 때 강한 서풍을

타고 번져 성산면 관음리와 위촌리 등 민가 30여 채를 집어삼켜 3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릉 산불로 축구장 면적 70여 배에 달하는 산림 50ha가 초토화했다. 비슷한 시각인 오후 2시께 경북 상주시

사벌면 덕기야산에서 발생한 불도 20여 시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축구장 면적의 18배에 이르는 13ha가량의 산림이 소실됐다. 또 60대 여성 등산객이 불길을 피하려다 실족해 숨지고 일행 2명은 다쳤다. /연합뉴스

“기표 잘못...투표용지 바뀌줘”...거절당하자 투표지 찢어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갖기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찢어버린 A씨가 경찰서행.

○~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

○~선관위 투표 관리관은 A씨가 훼손한 투표지를 수거, 확인 도장을 찍은 뒤 다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집에 가져가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개표 시 투표지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가정집(남녀노소) ▶ 뷔시터, 야유회
▶ 팬션/콘도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i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i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